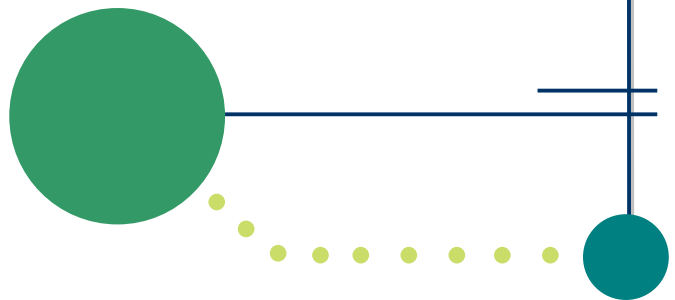




중남미 게임 시장 동향

- 브라질 게임업체 Interama, SEGA 콘솔게임기용 게임 출시
- Overplay, 브라질 최초의 DS용 게임 출시
- 게임 현지화 지원 업체 DL Multimedia, Columbia에 지사 설립



브라질 게임업체 Interama, SEGA 콘솔게임기용 게임 출시

● SEGA Mega Drive(Genesis)용 게임 개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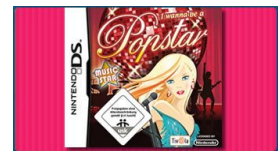
- ◆ 브라질 게임사 Interama는 지난 1월 22일 PC게임 'Blooming Daisies'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3월 7일에는 지난 1988년 출시된 SEGA의 16비트 고전 콘솔게임기 SEGA Genesis기반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
 -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Blooming Daisies'는 도시 배경의 공원 경영 시뮬레이션으로, 유산으로 물려받은 공원 부지에 식수를 가꾸어 도시 최고의 휴식터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인 게임으로, 현재 영어판과 포르투갈어판 런칭을 준비 중이며, PC Windows와 Mac OS X 플랫폼에서 구동될 예정
 - 이 게임의 퍼블리싱은 1998년 출시된 SEGA Genesis(SEGA Mega Drive의 복미 브랜드 명칭)의 브라질 출시를 담당하고 있고, 최근 신규 콘솔게임기 Zeebo로 주목받은 브라질 현지 업체 Tectoy가 담당할 예정
 - Interama는 Tectoy 출신의 개발자 Tex Pine이 나와서 창립한 독립 게임 개발사

● 출시 배경

- ◆ Xbox360, PS3, Wii와 같은 차세대 콘솔게임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브라질은 여전히 Genesis와 Master System 콘솔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최근까지도 이 고전 콘솔게임기가 매년 10만 대 가까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Tectoy는 상당한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이 시장을 기반으로 게임을 출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www.texpine.com  www.tectoydigital.com  www.interama.net

Overplay, 브라질 최초의 DS용 게임 출시



● 브라질 게임업체, DS용 음악게임 'Musicstar' 출시

- ◆ 브라질 게임업체 Overplay가 브라질 최초로 Nintendo DS용 게임 'Musicstar: I wanna be a Popstar' (북미버전: 'Dreamer: Musicstar Popstar', 발매사: 유럽 Tivola, 북미 DreamCatcher)'를 지난 1월 15일 출시

- Tivola(독일의 멀티미디어 제작업체)에 따르면, 해당 게임은 유럽과 미국 시장에 각각 1월 15일과 2월 24일 출시
- 이 게임은 Overplay가 지난해 3월 개발에 착수, 2008년 한 해에 걸쳐 제작. 유럽과 미국에서 각각 Tivoli와 DreamCatcher가 발매하며 추후 남미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 Amazon과 GameStop에서 구매 가능

'Musicstar: I wanna be a Popstar'

- ◆ 이 게임은 팝스타를 꿈꾸는 한 소녀가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 스타덤에 오르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으로, 게이머는 주인공 캐릭터를 맡아 세계 각지의 관객들 앞에서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여타 팀들과 경쟁을 펼치게 됨
 - 캐릭터 아바타, 의복, 머리 모양/색깔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경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각종 의상, 장신구, 악기 등도 구입이 가능
 - 멀티플레이 협력 모드(여러 플레이어가 각자의 악기로 같은 곡을 동시에 연주) 및 플레이어 간 1:1 대전 모드도 지원하며, 게이머가 기타, 드럼, 키보드 등으로 자작곡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Record Studio를 갖춤

 www.overplay.com.br

게임 현지화 지원 업체 DL Multimedia, Columbia에 지사 설립

DL Multimedia, 라틴 아메리카 로컬라이징 스튜디오 오픈

- ◆ 스페인의 현지화 지원 업체 DL Multimedia가 콜롬비아에 신규 현지화(Localizing) 스튜디오를 오픈,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서 스페인어 번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
 - 스페인 Madrid에 위치한 DL Multimedia는 게임, 소프트웨어, 영화 등의 미디어 콘텐츠 번역, 더빙, 자막 작업에 특화되어 있으며, 과거 Sony Computer Entertainment와 Microsoft, Blizzard에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음
- ◆ DL Multimedia의 창업자인 Tino Martin CEO는 "영상물 및 인터랙티브 콘텐츠의 번역, 더빙, 자막 작업에서의 13년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DL은 스페인 일류 번안 서비스 회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우리의 실력이라면 콜롬비아에서도 충분히 최고의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포부를 밝힘

 www.dl-multimedia.com